

# 복면 쓴 5·18시민군을 찾습니다

### 5·18역사왜곡대책위 '복면부대원' 찾기 나서 보수단체 북한군 왜곡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

3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5·18 광주민중항쟁 등 5월 역사를 왜곡·편향하고 망언을 일삼는 시도가 그치지 않고 있다.

5월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국민 신고는 3689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보수세력의 왜곡 시도도 여전히 있다.

5월 단체와 광주시 등은 사이버대응팀을 가동, 개설한 데 이어 증거 확보와 함께 고소·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27일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마스크를 쓰거나 수건을 쓰고 항쟁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상태다.

대책위는 또 광주시 등과 공조해 일부 보수 세력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임을 밝



얼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취한 행동을 '북한 특수군' 운운하며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반박 증거를 확보한 뒤 법적 대응 등을 취하겠다는 게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입장이다.

다. 대책위원회는 일단, 지난 1980년 수건을 쓰고 항쟁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상태다.

대책위는 또 광주시 등과 공조해 일부 보수 세력이 언급한 내용이 허위임을 밝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마스크를 쓰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한 시민 '복면 부대원'을 수소문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히기 위한 자료 분석에 들어간 형편이다. 이번만 아니다.

지난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뒤 35년이 흘렀지만 '5월 역사 왜곡·편향'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개설한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왜곡 사례 신고 건수는 무려 3689건에 달한다.

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종교계 등 338개 기관·시민단체로 구성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법률 사이버대응팀을 가동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왜곡 시도는 여전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한편, 시민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은 복귀와 광주가 아합하여 일어난 국난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월 21일 오후 5시, 계엄군이 광주에서 철수하자, 싸움 상대를 잃은 북한특수군 600명도 자취를 감추거나 복면으로 정체를 감추었다"고 주장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6    달뜨기 13:58  
해질 19:15    달지기 02:26

더위 식히는 단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우량 5~10mm

◇지역별 날씨(°C)

광주	13/24	보성	11/20
목포	14/21	순천	14/20
여수	14/18	영광	11/24
나주	11/24	진도	14/22
완도	14/20	전주	12/25
구례	13/22	군산	11/22
강진	14/22	원주	10/24
해남	14/22	홍산도	13/18
장성	13/23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	남동	0.5
남부	남동	0.5~1.0	남동	0.5~1.0
남해	남동	0.5~1.0	남동	0.5~1.0
서부	남동	0.5~1.5	남동	0.5~1.5
제주	남동	1.0~2.0	남동	1.0~2.0

◇생활지수

수면	30
운동	20
빨래	10

◇물때

목포	물몰		물올	
	시각	수준	시각	수준
여수	09:53	08:00	15:57	23:51
	22:30	15:57	18:03	23:51

◇주간 날씨

29(수)	30(목)	5/1(금)	2(토)	3(일)	4(월)	5(화)
☁	☀	☀	☀	☀	☀	☀
15/25	12/28	12/29	13/27	14/21	13/21	12/23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 처벌이 너무 관대했다 '동네조폭' 또다시 활개

### 경찰 대대적 단속 불구 신고자 폭행 등 잇단 행패

관대한 처벌 때문이었을까.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의 '함의' 때문이었을까.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지속적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27일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편의점에 또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43)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밤 9시40분께 조모(44)씨가 운영하는 백운동 편의점에서 "또 신고해봐라! 또 찾아오겠다"며 소리치며 손님을 막고 공포감을 조성했다.

지난해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8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찾아가 재범(再犯)을 저질렀다. 이른바 동네조폭의 '역습'이다.

경찰은 전과 19범인 김씨가 보복범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했기 때문인지, 처벌 의사를 감지하지 못하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서부경찰도 지난해 동네 조폭으로 입건했던 서모(46)씨를 최근 다시 불잡아 구속했다. 서씨는 지난해 검찰에 의해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자신의 본거지에서 생활하다 최근 입주민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아 구속됐다.

경찰은 "동네조폭이 보복 폭행과 협박 등을 저질러 비교적 짧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 반복적인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데다 노골적인 협박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0일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동네조폭 167명을 검거해 57명을 구속했지만, 복역을 마쳤거나 불구속된 뒤 이른바 '본거지'에서 활동을 재개한 동네조폭의 움직임이 주시하는 한편,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동네조폭 단속에 들어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유명 녹즙기 팝니다"

### 돈만 가로챈 20대 구속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백모(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유명 녹즙기 팝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48명에게 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백씨는 또 자신의 범행 과정에 휴대전화를 빌려준 여자친구(22)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물건을 독촉하거나 피해 사실을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올릴 경우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범행을 지속,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잠복 수사 끝에 지난 22일 밤 11시40분께 광주역 인근 모텔 앞을 지나가던 백씨를 붙잡았다.

## 광주·전남 비소식

### 더위 한풀 꺾이나

조여름 날씨를 보이던 광주와 전남은 비 소식과 함께 한동안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광주·전남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 낮부터 시작된 비는 늦은 밤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도~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24도로 전날보다 낮 기온이 4~5도가량 더 떨어지겠다. 예상강우량은 5~10mm.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1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26도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동부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28일·29일은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 한때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웅기자 pbxer@kwangju.co.kr

따뜻한 "나눔" 한가득 "행복"

작은 나눔으로 더 해가는 큰 기쁨 MG새마을금고

나누면 나눔수록 커지는 사랑, 행복, 믿음!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새마을금고의 마음입니다.

MG 새마을금고